

##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아버지와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허진선<sup>1</sup>, 김동희<sup>\*</sup>, 박정하<sup>2</sup>  
<sup>1</sup>부산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동서대학교 간호학과

### Influencing Factors on Father-Child Attachment in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s

Jin-Seon Heo<sup>1</sup>, Dong-Hee Kim<sup>\*</sup>, Jung Ha Par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버지-아동 애착 수준을 확인하고,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B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아버지 131명이다. 자료는 구조적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2월16일부터 8월16일까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버지-아동 애착의 평균은 3.79±0.47이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 아버지의 월수입에 따라 아버지-아동 애착 점수가 차이( $f=5.25, p<.010$ )를 보였다. 아버지-아동의 애착과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이었다( $r=.28, p=.001$ ).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부부갈등( $r=-.23, p=.010$ ), 양육스트레스( $r=-.44, p<.001$ ), 양육태도 중 수용-거부적 태도( $r=-.64, p<.001$ ) 및 통제( $r=-.30, p<.001$ )와는 부적 상관이었다. 아버지-아동 애착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89.29,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40%이었다. 아버지-아동 간 애착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아버지의 수용-거부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beta=-0.64, p<.001$ ). 본 연구결과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아버지-아동의 애착증진을 위해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를 애정적 양육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father-child attachment and to explore possible factors that may influence such attachment level in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31 fathers living in B city, between February 16 and August 16 in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cs,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1.0 program. The mean of father-child's attachment was 3.79±0.47. The level of father-child attachment was different according to monthly income ( $f=5.25, p<.010$ ).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ther-child attachment and father's marital satisfaction ( $r=.28, p=.001$ ). Father-child attach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ather's marital conflict ( $r=-.23, p=.01$ ), parenting stress ( $r=-.44, p<.001$ ), acceptance-rejection ( $r=-.64, p<.001$ ), and control ( $r=-.30, p<.001$ ),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acceptance-rejection attitude of fath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father-child attachment and accounted for 40% of the total variance of the attachmen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decreasing the father's acceptance-rejection attitude could be effective in improving father-child attachment.

**Keywords** : Attachment, Attitude, Conflict, Satisfaction,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Dong-Hee Kim(Pusan National Univ.)

Tel: +82-51-510-8338 email: dongheekim@pusan.ac.kr

Received May 18, 2016

Revised (1st June 8, 2016, 2nd July 15,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이 부모와 맺는 애착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걸쳐 전 생애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1]. 아동은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바탕으로 안전감, 따뜻함, 신뢰감을 형성해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이루게 된다. 아동은 애착관계를 맺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고, 학령전기에 이르러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확립하여 초기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2].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감정을 보다 잘 조절할 수 있으며, 공격성향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3]. 반면, 애착이 불안정한 경우 성인기의 성격형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계성 성격 성향을 나타낸다[4].

학령전기 아동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부모와 최초로 분리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인지와 언어능력의 발달로 애착행동의 표현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5]. 학령전기 아동과 부모와의 애착은 아동의 발달과업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시기 아동은 애착대상인 부모와의 분리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심을 획득하고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인지하는 개체화의 발달과업을 달성하게 된다[6].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이 어머니, 아버지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인간발달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양육자로서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이었던 반면 오늘날은 어머니와 동등한 돌봄 자로서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 할 뿐 아니라 자녀와 감정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7]. 아동이 아버지와 나누는 정서적 애착과 상호작용은 애착형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8] 아동의 애착형성에 아버지-아동의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과 부모의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통

적인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동의 애착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모어 애착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9-11], 양육스트레스[11,12]와 양육태도[13]이다.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부부갈등이 높으면 아동의 애착은 불안정해지고[10],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애착 안정성은 낮아져 적응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이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일뿐만 아니라 과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12]. 또한, 부모의 가부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적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4,9]. 이와 같이 대부분의 애착연구가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대해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 아버지-아동의 애착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한다면 이를 기초로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와 아버지-아동의 애착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

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이다.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유의수준  $\alpha=.05$ ,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  $f=0.15$ [14], 예측변수를 6개로 설정하였을 때 98명이 필요하였다. 총 139명의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131명의 아버지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 3세에서 6세의 아동을 둔 아버지로서 핵가족으로 부부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문화 가정인 경우이다.

## 2.3 연구도구

### 2.3.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Spanier[15]에 의해 개발되고 Cho 등[16]이 단축하여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부부적응 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10 (DAS-10)으로 측정된 점수이다.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된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 등[16]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 2.3.2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부부갈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Poter와 O'Leary[17]의 O'Leary-Poter scale (OPS)을 Kim 등[18]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Poter와 O'Leary [17]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6이었고, Kim 등[18]의 연구에서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79이었다.

### 2.3.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을 Lee 등[20]이 표준화한 한국형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으로 측정되었다. 도구의 관련이 있는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의 승인을 받고 도구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은 Abidin[19]에 의해 고안된 Parenting Stress Index의 축약형으로 1세부터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용이며, 학령 전기 아동을 둔 부모에게 가장 적합

한 도구이다. 도구는 부모가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모의 고통과 까다로운 아동, 부모-아동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대한 3가지의 범주로 각 범주별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의 범위는 36점에서 1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alpha=.91$ 이었다.

### 2.3.4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Rohner[21]가 개발한 유아 부모용 자녀수용-거부/통제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 Control Questionnaire: Child Version)를 Na와 Lee[22]가 표준화한 한국형 부모의 자녀수용-거부와 통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수용-거부와 통제의 두 가지 영역으로 수용-거부 25문항, 통제 4문항으로 총 29개의 문항,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수용-거부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거부적임을 나타내고, 통제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통제적임을 나타낸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49\sim.91$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47\sim.92$ 이었다.

### 2.3.5 아버지-아동 애착

아버지-아동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23]이 부모 및 또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의 개정본 IPPA-R을 Yang [2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5점 척도, 총 25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에서 Yang[24]이 15문항을 선별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Yang[24]의 연구에서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P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2013\_52\_HR) 후 2014년 2월 16일부터 2014년 8월 16

일까지 실시되었다. B지역 교육청과 어린이집 웹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을 확보하였다. 행정지역 구를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구자가 전화와 e-mail로 연락하여 기관의 장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해당기관의 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각 가정에 공고문을 발송해 아버지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됨과 연구의 목적 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집으로 발송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한 후 밀봉하여 기관으로 보내거나 연구자가 대상자의 가정으로 찾아가 수거하였다. 총 139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8쌍은 제외되어 최종 13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

###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와 아버지-아동 애착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아동 애착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와 아버지-아동 애착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버지-아동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51.1세였고, 36-40세가 43.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 이상 55.7%, 전문대졸 이상 32.1%, 고졸 이하가 12.2%순이었다. 월수입은 201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가 47.3%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33.6%, 전문직 25.1%, 서비스직 23.7%, 생산직 17.6% 순이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35.9%, 40시간 이하가 35.1%, 41시간에서부터 50시간까지가 29%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1)

Categories	n(%)	M±SD
Age(yr)	≤35	44(33.6)
	36-40	57(43.5)
	≥41	30(22.9)
		51.06±11.9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6(12.2)
	Junior college	42(32.1)
	≥University	73(55.7)
Monthly income (10 thousand won)	≤200	10(7.6)
	201 ~300	62(47.3)
	>300	59(45.1)
Job	Blue-collar	23(17.6)
	Service industry	31(23.7)
	Office worker	44(33.6)
	Professions	33(25.1)
Working time/week (hour)	≤40	46(35.1)
	41 ~50	38(29.0)
	>50	47(35.9)

### 3.2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아버지-아동의 애착

대상자의 결혼 만족도는 38.91±5.15, 부부갈등은 17.02±4.25였다. 양육스트레스는 73.97±16.49이고, 양육태도 중 수용-거부적 태도는 43.87±10.13, 통제적 태도는 9.07±2.06이었다.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3.79±0.47이었다(Table 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아동의 애착

아버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아동의 애착정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월수입이 2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0만원 이상 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더 높았다(Table 3).

### 3.4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와 아버지-아동의 애착과의 상관관계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결혼만족도와 정적 상관이었다( $r=.28, p=0.01$ ). 하지만 부부갈등( $r=-.23, p=.01$ ), 양육스트레스( $r=-.44, p<.001$ ), 양육태도 중 수용-거부적 태도( $r=-.64, p<.001$ ), 통제( $r=-.30, p<.001$ )와는 부적 상관이었다(Table 4).

**Table 2.**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Parenting Attitude, Father-Child's Attachment of Subjects. (N=131)

Categories	Mean±SD	Min-Max	Range
Marital satisfaction	38.91±5.15	26-50	10-50
Marital conflict	17.02±4.25	10-33	10-40
Parenting stress	73.97±16.49	38-115	36-180
Parenting attitude	Acceptance-rejection	43.87±10.13	25-67
	Control	9.07±2.06	4-16
Father-Child's Attachment	3.79±0.47	2.47-4.93	1-5

**Table 3.** Differences of Father-child's Attach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1)

Categories	Categories	Father-child's Attachment	
		M±SD	t or F(p)
Age(yr)	≤35	3.80±0.48	1.15(.32)
	36-40	3.84±0.46	
	≥41	3.68±0.4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95±0.51	1.75(.18)
	Junior college	3.70±0.45	
	≥University	3.80±0.47	
Monthly income (10 thousand won)	<200 <sup>a</sup>	3.55±0.72	5.25(<.01) b>c
	200-300 <sup>b</sup>	3.92±0.42	
	>300 <sup>c</sup>	3.69±0.44	
Job	Blue-collar	3.67±0.50	0.65(.58)
	Service industry	3.83±0.48	
	Official worker	3.73±0.47	
	Professions	3.78±0.44	
Working time/week (hour)	≤40	3.77±0.47	0.48(.62)
	41-50	3.85±0.43	
	≥51	3.76±0.47	

**Table 4.** Relationship among Father-child's Attachment, Marital Attribut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N=131)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Parenting attitude	
				Acceptance-rejection	Control
Father-child's attachment	.28(.001)	-.23(.01)	-.44(<.001)	-.64(<.001)	-.30(<.001)

**Table 5.** Factors Predicting Father-child's Attachment (N=131)

Predictors	B	β	t(p)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p)
Acceptance-rejection attitude of father	-0.03	-0.64	-9.45(<.001)	0.41	0.40	89.29(<.001)

**3.5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 태도가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아동 애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변수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에 앞서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66~.90로 .10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11~1.48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tson 검정을

통한 잔차 분석결과는 1.53으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가정검증결과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부부 갈등, 양육스트레스, 통제적인 양육태도 및 월수입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제거되었다.

아버지-아동 애착을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89.29,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40%이었다. 아버지-아동의 애착을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버지의 수용-거부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beta=0.64, p<.001$ ).

#### 4. 논의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벌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아버지와 아동의 애착을 확인하고,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가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애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약 3.8점으로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Heo 등[25]의 연구에서 아버지-아동의 애착 점수인 약 3.8점과 동일하였다. 같은 도구로 측정한 Yang [24]의 연에서 맞벌이 부모의 부모-아동의 애착은 약 3.3으로 나타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아동과의 애착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Heo 등[25]의 연구 결과와 같이 아버지가 지각하는 아동과의 애착은 3.79점인데 비해 마샷 상호작용 평가(Marschak Interaction Method: MIM)를 사용하여 심리전문가가 평가하였을 때 애착 점수는 2.08점으로 아버지는 자녀와의 애착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지 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연구에 비해 아버지와 자녀의 애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아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아버지의 월수입이 20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0만원 이상 인 경우보다 애착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과의 애착 정도에 차이가 없었던 Han과 Hwang [11]의 연구와 상이하였다. 아버지-아동 애착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 비

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등에서 자녀양육과의 관련성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자녀에 대한 가치가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되므로[26]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과 애착정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아버지-아동의 애착이 높았다. 이는 Kim 등 [9], Lim 등[10], Han과 Hwang [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아버지들은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자녀교육에 무관심해지거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여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였다[27].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아버지에게 전통적인 역할과 더불어 다양한 역할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아버지들은 가장, 경제적 담당자, 자녀양육자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역할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8].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 아버지가 자녀수용-거부 및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아동의 애착관계가 낮았다. Kim [29]의 연구결과 원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일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 및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므로, 향후 아버지의 아동기 애착경험을 확인하는 연구가 함께 실시되어 양육태도와 애착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심도 있게 밝힌다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버지-아동의 애착정도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으로는 아버지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였다. 아동의 애착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 연구가 거의 없어 아버지의 아동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모자간 애착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던 Han과 Hwang [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을 조사한 Lim [30]의 연구에서 거부적 양육태도는 또래 애착과 부적상관, 애정적 양육태도는 정적상관을

나타내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강할수록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약하였다. 본 연구와 Lim [30]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래와의 애착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아동의 애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시 아동이 또래 집단과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거부적 양육태도를 애정적 양육태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대부분의 애착연구가 어머니-아동의 애착에 집중되어 있고, 아버지-아동의 애착 및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는 시점에서 실시된 본 연구는 아버지-아동 애착의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중간이상의 수준이었고,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아버지-아동의 애착은 높았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자녀수용-거부 및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아동의 애착관계는 낮았다.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였다. 그러므로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여 발달과업을 완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버지-아동의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아버지-아동의 애착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혼 만족도를 강화하고,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1] Holmes JR,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2n d Ed.", pp. 1-272, New York: Routledge, 2014.  
 [2] Shaffer DR, Kipp K,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9th Ed.", pp. 1-608, Belmont: Wadsworth, 2012.

- [3] Ooi YP, Ang RP, Fung DS, Wong G, Cai Y, "The impact of parent - child attachment on aggression, social stress and self-este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27, pp. 552-566, 2006.  
 DOI: <http://dx.doi.org/10.1177/0143034306073402>
- [4] H. W. Park, C. N. Son, "Temperament, perceived maternal behaviors, and attachment style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5, pp. 1-16, 2012.
- [5] B.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maternal departure style and early adjustment in the preschool year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6] Tuttle J, Campbell-Heider N, David TM, "Positive adolescent life skill training for high-risk teens: Results of group intervention study",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vol. 20, 3, pp. 184-191, 2006.  
 DOI: <http://dx.doi.org/10.1016/j.pedhc.2005.10.011>
- [7] Y. K. Jo, "New liberalism and the subsequent changes in the father rol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p. 927-945, June, 2008.
- [8] Clarke-Stewart KA, "And daddy makes three: The father's impact on mother and young child", *Child Development*, vol. 49, pp. 466-478, 1978.  
 DOI: <http://dx.doi.org/10.2307/1128712>
- [9] S. S. Kim, M. S. Shin, H. J. Lee. "Mental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6, pp. 703-715, 2007.  
 DOI: <http://dx.doi.org/10.15842/kjcp.2007.26.3.010>
- [10] H. J. Lim, H. J. Choi, S. N. Choi,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f friends and relatives, couple's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upon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3, pp. 91-109, 2012.  
 DOI: <http://dx.doi.org/10.5727/KJCS.2012.33.2.91>
- [11] T. S. Han, H. J. Hwang.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otionality, marital conflicts and parenting related variables on preschool attach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0, pp. 99-119, 2010.  
 DOI: <http://dx.doi.org/10.18023/kjece.2010.30.5.005>
- [12] H. M. Kim, H. S. Doh,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5, pp.279-298, 2004.
- [13] H. J. Park, H. J. Moon, "The effects of a mother's guilty conscience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8, pp. 121-137, 2012.
- [14]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pp. 474,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 [15] Spanier GB,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38, pp. 15-28,

1976.  
DOI: <http://dx.doi.org/10.2307/350547>

[16] H. Cho, S. M. Choi, H. J. Oh, J. H. Kwon,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vol. 23, pp. 655-670, 2011.

[17] Potter B, O'Leary KD.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8, pp. 287-295, 1980.  
DOI: <http://dx.doi.org/10.1007/BF00916376>

[18] J. Y. Kim, H. S. Doh, M. J. Kim,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and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9, pp. 133-150, 2008.

[19] Abidin R,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3rd ed.", pp. 25, Virginia: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20] K. S. Lee, K. M. Chung, J. A. Park, H. J. Kim,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 (K-PSI)",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7, pp. 689-707, 2008.

[21] Rohner RP,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nd acceptance rejection", pp. 137-186, Connecticu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2005.

[22] E. S. Na, J. I. Lee, "A test 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control questionnaire: A parenting scale for Korean parents having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pp. 215-247, 2008.

[23] Armsden GC, Greenberg M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 427-454, 1987.  
DOI: <http://dx.doi.org/10.1007/BF02202939>

[24] A. K.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al-income family and young child's teacher-parents attach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15, pp. 197-212, 2006.

[25] J. S. Heo, H. M. Son, Y. H. Kim, D. H. Kim, J. Y. Ha, J. H. Park, "Gaps between parental perceptions and observational measurements of parent-child attachment", *The Asi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 Sciences*, vol. 25, pp. 251-261, 2016.

[26] D. B. Ju, D. K. Choi, H. Bae. "The Influence of father's individual trait, marriage satisfaction, and conflict between husband and wife on value of child".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36, pp. 313-340, 2014.

[27] Frosch CA, Mangelsdorf SC, McHale JL, "Marital behavior and security of preschooler-parent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4, pp. 144-161, 2001.  
DOI: <http://dx.doi.org/10.1037/0893-3200.14.1.144>

[28] Riedmann G. "Preparation for parenthood", *The Global Library of Women's Medicine*, 2008.  
DOI: <http://dx.doi.org/10.3843/GLOWM.10110>

[29] C. S. Kim, "Mother's childhood attachment in the family of origin,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attitude" [master's thesis], Cheong-j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07.

[30] Y. H. Lee,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ego-resiliency, stress-coping strategies and smartphone addiction"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6.

허진선(Jin-Seon Heo)

[정회원]



• 2015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관심분야>

아동간호, 애착관계

김동희(Dong-Hee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12월 : Flinder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간호학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어린이 건강관리, 간호교육

박정하(Jung-Ha Park)

[정회원]



• 2003년 2월 : 부산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서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환자안전, 간호교육